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 JP 모건 투자 세미나: 2023년 IMF/World Bank 회의 기간 중-국제 경제 정치 환경 예상 분석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실업수당 청구 수 2021년 1월 이래 최고치
- CNN Business: 연준 조사 결과, 신용 접근 힘들어졌다
- WSJ: 연준 최고 관리, "5월 금리 인상 지지한다"
- WSJ: 엘런 재무장관, "미·중 관계에서 경제보다는 국가 안보 우선"

[미국 금융]

- WSJ: WSJ의 베이지 북 해석은 "신용 경색, 경제 둔화"
- Bloomberg: 중국 은행, "SVB 교훈 삼아 적절한 금리 유지하겠다"
- WSJ: 운송 주 하락 보니 경제 약화가 예상된다
- WSJ: 회계 법인 EY 성장 둔화... 분사 추진 실패로
- WSJ: 미정부, 30억불 들어 옥상 솔라 패널 확대 지원

[주택]

- CNN Business: 모기지율은 5.5%가 '최적'하다
- Bloomberg: 미국인들 집 뺏긴다... 압류 증가 탓
- Bloomberg: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이 주택 소유
- EliteAgent: 플랫폼 AI Dream Home, 집 구매자에게 효과적

[전기차]

- Bloomberg: 한국 1백50억불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투자... 2030년까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저축예금 이자율 15년 만에 최고치, 미국인 혜택은 별로 감소
- CNN Business: Ikea, 미국 8곳 입점 예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보고서]

JP 모건 투자 세미나: 2023년 IMF/World Bank 회의 기간 중-국제 경제 정치 환경 예상 분석

1. 인플레이션이 목표 경로로 빠르게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경우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예상은 너무 시기상조다. 바꿔말해 "더 오랜 기간" 금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컨센서스 견해에 따르면 시장이 하반기 많은 선진국에서 너무 지나친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선진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2. 정책결정자들은 긴금 조치들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위기가 빠르게 진행중인 상황에서 금융 안정화를 꾀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3. 미국 경지 침체는 온다. 하지만 언제, 그리고 어느만큼 올지는 모른다. 아직 경기 확장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실질 금리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 학계, 시장 참가자들간의 전망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다르다.
5. 미국 국채에 대한 기술적 디폴트 위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빠르면 5월 부터 시작될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의회의 대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6. 미·중 관계는 상호 소통이 부족하고 우발적인 갈등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서로 '착륙'하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이다.
7. 매크로한 차원에서 탈 세계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새로운 국가별 산업 정책들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에서다. 예를 들면, 미국의 IRA, 유럽의 그린 뉴 딜 등이다.
8.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고착된 갈등으로 보인다. (frozen conflict)
9.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ESG 투자보다 기후 혁신과 금융에 더 초점을 맞추어 지고 있다.
10. 국제 사회에서 국채 구조조정을 위한 실행 가능한 공통 프레임워크 (Common Framework for sovereign debt restructuring)에 대한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는 주로 중국, 파리클럽, 다자개발은행 간의 차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제]

Bloomberg: US Recurring Jobless Claims Jump to Highest Since November 2021

미 실업수당 청구 수 2021년 1월 이래 최고치

- 이런 현상 때문에 노동시장이 이제는 어느정도 둔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현재 계속 실업수당 청구 수당을 받는 숫자는 4월 8일에 끝나는 주의 경우 6만1천개 늘어난 총 1백87만건으로 연방노동시장 오늘 목요일 밝혀졌다.
- 또한 다른 발표인데,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활동 지표는 수요 약세 때문에 4월의 지표는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급 및 받는 가격 지표(Indicators of prices paid and received)도 팬데믹 초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Accessing credit has become harder, Fed's Beige Book shows

연준 조사 결과, 신용 접근 힘들어졌다

- 연준의 정기적으로 전국 비즈니스 업체를 방문해 비즈니스 여건을 조사한 뒤 이를 '베이지 북'으로 발표한다. 이번에는 어제 수요일 발표.
- 이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체들이 답변하기를 지난달 은행 위기 이후로 은행들의 여신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것.

-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지난 수 주 동안, 연준 관할 12개 지역 중에 9개는 변동 없거나 약간 성장했고(slight growth) 나머지 3곳은 소폭 상승(modest gains)했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또한 기업체들을 답변에 따르면 올 봄에 소비지 지출, 생산 활동, 건축 부분 경기는 같거나 약간 하락했다는 것. 여행 업계는 지난 수주간 활발했다고 답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Top Fed Official Signals Support for May Interest-Rate Increase 연준 최고 관리, “5월 금리 인상 지지한다”

- 뉴욕연방은행 총재 John Williams는 향후 2주 있다 열리는 연준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시사했다.
- 그는 “인플레 너무 높다. 가격 안정에 우리의 금융 정책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어제 맨해튼 금융 전문가들 회의에서 밝혔다.
- 한편 투자자 80% 이상이 오는 5월 2일부터 양일간 회의에서 0.25%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WSJ: Janet Yellen to Say Security Comes Before Economy in U.S.-China Relationship 옐런 재무장관, “미·중 관계에서 경제보다는 국가 안보 우선”

- 오늘 목요일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미국의 대 중국 정책에서 경제 성장 유지보다는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 순위”라는 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 그는 먼저 양국 관계의 3가지 목표는 인권과 국가 안보 보호, 건강한 경제 관계 설정, 주요 글로벌 이슈 협력 이라는 것. 그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앞으로 글로벌 경제 파워를 유지할 것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Lending Slowed, Economy Cooled After Bank Failures, Fed Report Shows

WSJ의 베이지 북 해석은 “신용 경색, 경제 둔화”

- 월스트리트 기사는 연준이 수요일 발표한 베이지 북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아래 내용을 강조했다.

- 지난 3월 중산 2개 미국 은행이 붕괴한 후에 최근 수 주 동안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그대로(flat)이며,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적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 현재 전문가들은 두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 하나는, 지금까지의 역풍이 금리 인하에 얼마큼 효과를 주는지 판단할 때까지 지켜보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등 지나친 금리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Economic Club of Chicago 관계자).
- 이와 반대로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는 금리 인상이 심각할 정도로 대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있고, 높은 성장이 물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s Central Bank Vows 'Appropriate' Rates In Lesson From SVB

중국 은행, "SVB 교훈 삼아 적절한 금리 유지하겠다"

- 중국 인민은행은 SVB 은행 위기에서 교훈을 찾아 자국의 금리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 Zou Lan 통화정책국장은 "금리 리스크에 심각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신용과 통화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금리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한편 인민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급격한 금리 상승이 글로벌 금융 안정을 해치고, 글로벌 금융 시장을 뒤흔든 SVB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었다.

Bloomberg 기사

WSJ: Drop in Transportation Stocks Foreshadows Weakening Economy

운송 주 하락 보니 경제 약화가 예상된다

- 구체적으로 다우존스 운송 지수는 항공사, 철도회사, 철도 회사 등 20개 대형 미 회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우존스 평균 지수보다 지난 2월 초 이래 8.3 퍼센트 포인트 뒤쳐지고 있다.
- 운송 및 소형주 등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은 전체 시장보다 뒤 치고 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
- 대형주보다 더 위험하고 경제 변화에 더 민감한 편인 소형주도 연초 랠리 이후 최근 수 주 간 하락세를 보였다. 2023년 S&P Small Cap 600 지수는 0.9% 상승했지만 S&P 500 지수의 8.2% 상승에 크게 밀돌았다.

WSJ 기사

WSJ: EY Confronts Slowing Growth After Breakup Deal Fails 회계 법인 EY 성장 둔화... 분사 추진 실패로

- Ernst & Young은 당초 회계 감사와 컨설팅으로 회사를 분사할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6억불의 비용이 날아갔다.
- 문제는 미국에서 회계 감사와 자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EY의 비즈니스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 EY 전체 매출 450억 달러의 약 40%를 차지하는 미국 사업 성장은 12월 이후 매달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 두 개의 미국 은행 붕괴 이후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 기사

WSJ: Energy Department Commits \$3 Billion to Expand Rooftop Solar Access 미정부, 30억불 들어 옥상 솔라 패널 확대 지원

- 연방 에너지부는 옥상 태양광 설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된 채무 증권에 대해 최대 30억 달러까지 보증할 예정이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없애도록 하면서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하겠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 관련 회사인 Sunnova NOVA Energy International은 대출금의 일부를 평균 신용 점수 이하의 주택 소유자와 그리고 전력망이 불안정해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푸에르토리코에 지원할 예정이다.
- 해당 자금은 에너지국의 용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데 회사 Sunnova가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33억달러의 파이낸싱 패키지 중에 대부분인 30억달러의 지급을 에너지부가 보장하게 된다.

WSJ 기사

[주택]

CNN Business: 5.5% may be a magic number for mortgage rates 모기지율은 5.5%가 '최적'하다

- 모기지율은 지난 1년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여 11월에 7.08%에 달했고, 현재는 6.27%다. 이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자는 판매를 꺼리고 높은 이자율로 주택 구매자가 되었다.
-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1%가 5.5% 이상의 모기지율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소비자의 62%는 정상적인 모기지율이 5.5% 미만이라고 생각한다.
- John Burns와 연구 분석가인 Maegan Sherlock은 “모기지율을 5.5% 미만으로 낮추는 주택 건설업자들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미국의 많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모기지율을 5% 이하로 낮추고 있다”고 말했다.

Tracking the rise and fall of mortgage rates in the US

30-Year fixed rate mortgage average, 2018 to present



Note: Data updates each Thursday

Source: Freddie Mac vi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Graphic: Matt Stiles, CNN

CNN Business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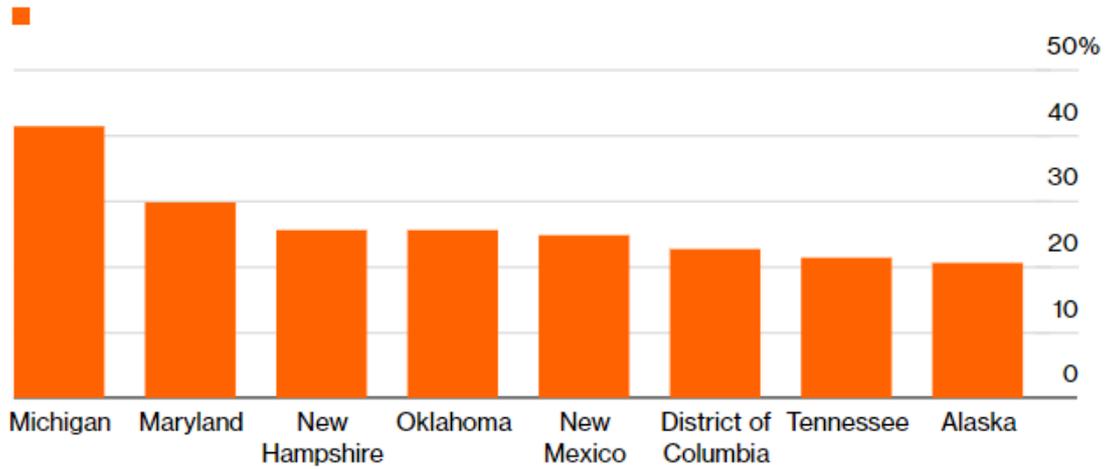
Bloomberg: More Americans Are Losing Their Homes as Foreclosures on US Properties Rise

미국인들 집 뺏긴다... 압류 증가 탓

- 부동산 데이터 분석 회사 ATTOM에 따르면 미국 1분기 압류 신청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압류 활동은 연간 기준으로 23개월 연속 증가했다.
- 지난 분기에 가장 많은 압류 조치가 시작된 주요 도시에는 뉴욕(4,674명), 시카고(3,549명), 로스앤젤레스(2,210명), 휴스턴(2,120명), 필라델피아(1,985명)가 포함된다.
- 1~3월 압류율이 가장 높은 주요 도시 지역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Fayetteville(526가구당 1가구), 클리블랜드(582명 중 1명),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661명 중 1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671명 중 1명), 캘리포니아주 Bakersfield(688명 중 1명)가 포함된다.
-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지난 1월 압류율이 가장 높은 30개 도시 지역 중 24개 도시의 중위 가구 소득이 약 71,000달러 미만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다.

Biggest Rise in Foreclosures Filings

Michigan leads all states with a 41.2% jump last quarter



Source: ATTOM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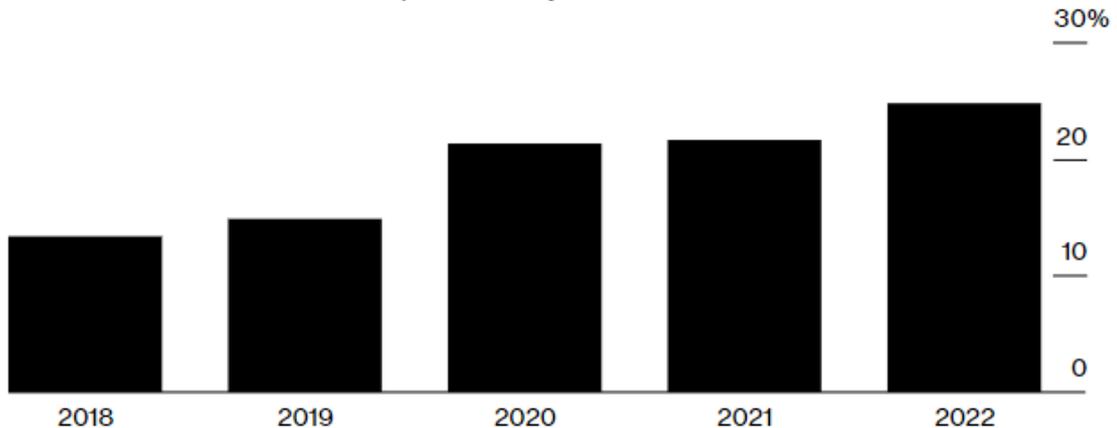
Bloomberg: Half of Millennials Own Homes. The Rest Fear They Never Will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이 주택 소유

- 미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밀레니얼 세대의 주택 소유율은 51.5%를 기록했다.
- 밀레니얼 세대 중 미시간주 Grand Rapids에 거주 중인 63%가, 로스앤젤레스에는 27%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
- Apartment List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중 주택 무소유자의 67%는 계약금이 없고, 18%는 10,000 달러 미만을 가지고 있다. 약 42%가 신용 불량으로 인해 주택 소유가 힘들다고 답했다. 이는 2018년의 39%에서 증가한 수치다.

Millennials Increasingly Give Up On Homeownership

■ Share of millennial renters who plan to "always rent"



Source: Apartment List 2022 survey

Bloomberg 기사

EliteAgent: House hunting just got smarter: AI Dream Home helps buyers bring their imaginations to life**플랫폼 AI Dream Home, 집 구매자에게 효과적**

- AI Dream Home은 구매자가 이상적인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동산 검색 플랫폼이다.
- 이는 realtor.com 의 모든 목록을 검색하여 구매자의 프롬프트(prompt)와 일치하는 집을 찾아준다. 또한 집 이미지와 함께 실제 시장에 나와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EliteAgent 기사

[전기차]**Bloomberg: South Korea to Invest \$15 Billion in New EV Battery Technology****한국 1백50억불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투자... 2030년까지**

- 이같은 투자는 민관 공동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서 1등국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 저장 장치를 가볍게 할 수있고 가격도 낮출수 있는 가장 유망한 기술이라 여러 업체가 이의 상용화를 위해 앞다투어 경쟁중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CNBC: Savings account interest rates just hit a 15-year high, but fewer Americans are benefitting****저축예금 이자율 15년 만에 최고치, 미국인 혜택은 별로 감소**

- Bankrate에 따르면 온라인 저축 계좌 금리의 최고 수익률은 5%이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이며, 작년의 0.8%보다 높은 수치다.
- 그러나 저축자들의 22%만이 계좌에서 3% 이상을 벌고 있다. 이자율이 높은 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지역 지점 선호와 기존 은행의 편안함 때문이다.
- 또한 미국인의 49%가 작년에 비해 저축을 줄이고 있다.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저축 가능 금액보다 신용카드 빚이 더 많기 때문이다.
- FDIC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2년에 4.5%의 가구가 당좌 예금이나 저축 계좌가 없었다. 이는 최소 잔고 요건에 충족되는 돈이 없고, 은행을 불신하

며, 계좌 수수료에 대한 우려 등 때문이다.

CNBC 기사

CNN Business: Ikea stores coming soon to 8 new US locations Ikea, 미국 8곳 입점 예정

- 이케아는 20억 유로(21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매장 확장을 위함이다. 이는 단일 국가에 대한 소매업체의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이다.
- 이 회사는 목요일에 향후 3년동안 미국에 8개의 대형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또한 9개의 소규모 “계획 및 주문 지점”을 열 것이라고 했다. 이는 컨설턴트와 집 설계 및 주문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테슬라 1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못 미쳐...주가 8% 넘게 급락"

"가격 내려 매출 늘었지만 순익은 작년 동기보다 24% 감소"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순익이 작년 동기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일(현지시간) 테슬라가 공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순익은 25억1천300만달러(약 3조3천398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24% 줄었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85달러로,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와 같은 수준이다.

매출은 233억2천900만달러(약 31조42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